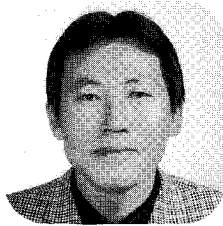


전국농민대회를 바라보면서



한농연 울주군연합회 회장
박 대 환

매년 추수가 끝나고 나면 흥에 겨워 춤을 추어야 할 시골의 농민들이 수십억원을 들여가며 서울로 모인다. 흙의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살수가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 농사라도 지어가며 농업의 어려움을 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.

올해에도 11월 19일 서울에서 우리 쌀 사수, 농협 개혁촉구를 위한 350만 농민대회가 예년처럼 개최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수확을 올릴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. 1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한곳에 모이기 위해선 식대, 관광버스대여, 현수막 비용 등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격렬한 행사 뒤엔 부상자가 속출하고 집행부는 사법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가 농민 생존권 쟁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을까?

쌀 수입 개방 반대, 농협개혁이 농민들의 바람만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 소모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 후속조치들이 년 중 내내 각 지방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. 수입개방 반대도 중요하지만은 농산물은 먹는 수요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수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국산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

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 농협개혁 역시 마찬가지다. 무조건적인 개혁이 아니라 농협의 반 농업적 반국민적 행태가 무엇인지를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때 농협은 농협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년 중 내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.

◎ 차량을 이용한 스티커 홍보 : 350만 농민중에서 100만명 이상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때 포터차량은 적재함 측·후면에, 승용차량은 후면 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농산물 운송 등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닐 때 그 홍보효과는 TV광고보다도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.

◎ 국기를 이용한 조기게양 홍보 : 농촌 집집마다 국기를 이용하여 조기를 게양하고 그 위에 “농업근조”라는 리본을 달아 년 중 게양했을 때 국내는 물론 외신기자들에게까지 한국농업의 위기를 알리고 농민의 아픈 심정을 내면적으로 충분히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본다.

상기내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농연중앙연합회에 기대해 본다. **한농연**